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4.23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기관

- **가스안전공사-표준과학研, 안전한 수소경제 조성 손잡다**(‘25.4.22, 에너지신문)
 -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‘수소산업 표준화 및 안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대전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원에서 22일 체결
 - 이번 협약은 수소산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양기관은 협약에 따라 △수소 산업 표준화 △수소유량 시스템 안전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

□ 지자체

- **전주시, '전국 최초' 수소 시내버스 안전 협력모델 구현**(‘25.4.22, 전자신문)
 - 전주시는 22일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현대자동차,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, 전주비전대학교, 한국교통안전공단과 ‘수소 시내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’을 했음
 - 현재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394대의 시내버스 중 178대(45%)가 수소버스이며, 시는 오는 2031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할 계획

□ 해외시장 동향

- 에어버스, 17억 달러 투입한 수소 항공기 개발 10년 연기...친환경 계획 재검토('25.4.21, 글로벌이코노믹)
 - 에어버스는 2020년 말 최대 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비행할 수 있는 3,700km 항속거리를 갖춘 수소 항공기 개발 계획을 발표
 - 그러나 에어버스는 기술적 난관과 수소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2035년까지 수소 항공기를 상용화하기 어렵다는 결론지으며 예산을 4분의 1로 축소하고 출시 일정을 10년 연기

□ 오피니언

- [사설] 기대되는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('25.4.16, 가스신문)

□ 기획

- IPO 출사표' 원일티엔아이, "LNG·수소 설비로 에너지 전환 대응"('25.4.21, 이코노미스트)
- IPO 시동 롯데글로벌로지스 "이차전지·수소 시장 통해 도약"('25.4.22, 세계일보)
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- 미국 에너지부(DOE), 100억 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예산 대폭 삭감(OilPrice, 25.4.17)
 - 미국 에너지부(DOE)가 기존 편성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해당 조치는 이미 체결된 정부 계약이나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,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온 두 핵심 부서의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
 - 삭감 대상에는 엑손모빌, 옥시덴탈* 등 석유 메이저와의 공동 프로젝트뿐 아니라, First Solar, SunPower 등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관련 기업들도 포함됨
 - * 엑손모빌: 미국 최대 석유·가스 기업 중 하나로, 최근 탄소 포집 및 수소 등 탈탄소 기술 투자 확대 중
 - 옥시덴탈: 미국의 종합 에너지기업으로, 탄소 포집(CCS) 기술 및 저탄소 유전개발에 주력
 - 특히,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*를 통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정책 기조가 급격히 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혼란 초래
 - * IRA(Inflation Reduction Act): '22년 제정된 미국 청정에너지·기후 법안
 - 이번 예산 삭감은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축소를 의미하며, 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추진을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 제기됨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스코틀랜드 킨토어 서부 수소생산플랜트 승인 권고(BBC, 25.4.18)

- 스코틀랜드 킨토어 서부에 위치한 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 계획이 지역 위원회의 반대*에도 불구하고 승인 권고를 받았다고 발표함
 - 가리오흐(Garioch) 지역 위원회는 △문화유산 경관 훼손 △산림 훼손 △지역 경관 영향 등을 이유로 승인 거부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조건부로 승인 권고
 - 해당 프로젝트는 Statera Energy*의 프로젝트로,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설비 및 지하 파이프라인 포함으로 구성되며 스코틀랜드 북부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평가됨
- * Statera Energy: 영국 기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개발기업
- EU 및 영국 내 수소 관련 산업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,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충돌할 가능성 고려 필요함
 - 지속가능한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, 자연보존 계획, 지역 환원 정책 등 기업-정부-지역의 3자 협력모델 필요성 제기됨



자료: Statera, Kintore Hydrogen

□ (안내) 2025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추천(신청) 공고

-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였거나,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,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(신청) 바랍니다.

* [링크 바로가기](#)  클릭

2025년도 수소의 날

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를 찾습니다!

 신청기한 2025. 4. 30.(수) 18:00 까지

 포상대상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

 포상훈격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
※ 변동될 수 있음

 포상수여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
(2025.11.3. 예정)

 신청방법 이메일(prize@h2korea.or.kr)로
공적조서 등 서류 제출

 문 의 한국수소연합
정책지원실
02-6258-7473

자세한 사항은 '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
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(신청)공고'를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